

Rosneft, 석유기업 TNK-BP 인수

지분 100% 인수하고 BP와 맞교환 ... 하루 산유량 410만배럴로 증가

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Rosneft가 러시아-영국 합작 에너지기업 TNK-BP의 지분 100%를 모두 인수하는 절차를 3월21일(현지시간) 마쳤다고 Rosneft가 발표했다.

거래로 Rosneft는 TNK-BP의 영국 BP(British Petroleum) 지분과 러시아 컨소시엄기업 AAR 지분을 모두 사들여 영국-러시아 합작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게 됐으며 BP는 Rosneft 지분 19.5%를 확보하면서 TNK-BP의 2대 지주로 부상했다.

TNK-BP는 러시아 컨소시엄기업 AAR과 영국 BP가 50%씩 지분을 보유했던 합작기업로 러시아 3대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였으며, TNK-BP를 인수하면서 Rosneft는 하루 석유 생산량 410만배럴로 230만배럴을 생산하는 미국 ExxonMobil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으로 부상하게 됐다.

이고리 세친 Rosneft 회장과 밥 더들리 BP 최고경영자(CEO)는 3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거래 종료를 보고했다.

푸틴 대통령은 Rosneft와 BP 지도부에 축하의 말을 건네며 “거래는 610억달러의 상당의 대규모로, 아주 성공적이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3/22>